

TRANS- HUMANITIES

Title : ‘자서전’(auto-bio-graphie):

삶을 위한 삶－글/쓰기(écriture) 계약

**Deconstruction of the “Autobiography”: An Analyse of
the Relationship of Visible and Invisible among *Autos*,
Bios and *Graphein***

Author(s) : 배지선 (Jisun BAE)

Source : *Trans-Humanities*, Vol. 8 No. 2 (2015), pp. 141–67.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HA WOMANS UNIVERSITY

‘자서전’(auto-bio-graphie): 삶을 위한 삶—글/쓰기(écriture)¹ 계약

배지선 (파리 8대학)

“해체하다,가 의미하는 것은 떼어내고, 분해하고, 집합(결합체)에 이 결합(체)의 부품요소 사이에 어떤 가능성이—여기서부터 시작되지만, 결합체로서는 닫혀진—작동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

“Déconstruire signifie démonter, désassembler, donner du jeu à l’assemblage pour laisser jouer entre les pièces de cet assemblage une possibilité d’où il procède mais que, en tant qu’assemblage, il recouvre.” (Nancy 215)²

-
1. 라틴어 *scriptura*에서 온 불어 *écriture*는 불어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며,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graphie*부터, 즉 일종의 문자, 표기법 아니면 특정한 문자 체계와 기호—예를 들면, 알파벳이나 표음 혹은 표의문자 등—, 글씨나 필적, 화법, 작가의 문체, 화가의 스타일, 작곡가의 작곡법, 더 나아가 법적인 문서나 서류, 회계장부, 관공서의 부기나 기장, 아니면 기술행위, 단순한 기록이나 받아쓰기까지 포괄한다. 이 단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단어도 그렇다. 소통은 맥락에 따라 암묵적 상호동의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것이 단어의 다른 의미, 혹은 뉘앙스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이해 혹은 오해 가능성도 존재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시적언어 혹은 문학—그리고 철학—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의 내재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écriture*의 번역으로 돌아오자면, 이 단어를 이 수많은 의미역 중 하나로 번역하는 것은, 그것이 데리다의 텍스트에 한정된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데리다에게 번역은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번역은 원어와의 관계에서 폭력, 번역불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어떤 ‘번역불가능성’을 지워서는 안 된다. 이것이 “traduction relevante”이다. 여기서 나는 또 다른 번역어의 문제를 들여오고 말았다. 데리다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좋은 혹은 나쁜 번역, 올바른 혹은 틀린 번역의 틀을 넘어서고자한다(Derrida, “Qu’est-ce qu’une” 561-76). 이 단어를 아주 단순히 해석하자면, 번역된 말을 감추면서도 드러내는 번역일 것이다. 향신료가 음식에 스며드는 것처럼 요리가 끝난 뒤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I. 들어가며

‘자서전적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떤 정체성을 가정하는 글쓰기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나’라는 나레이터, 저자가 ‘나의 삶’에 대해서 쓰는 것으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는 주체’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을 쓰는 ‘나’와 글쓰기 대상으로서의 ‘나와 내 삶’ 사이의 동일시가 언제나 당연하게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나’라는 글을 쓰는 주체의 정체성도 언제나 동일하게 규정되지 않는다. 주체의 정체성은 미리 선험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번역’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정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자(서)전적 글쓰기’는 ‘자서전’을 가능하게 혹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의 긴장과 발화의 장

다른 형태가 되었다고 그 향과 흔적을 느끼게 하는 것과 같은 번역. 여기서 방대하고도 난해한 번역의 문제를 깊게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불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데리다의 텍스트를 통해서 생각과 ‘쓰기’를 하면서, *écriture*를 ‘글/쓰기’로 표기해 한국어에 상처를 내는 것에 변명을 피할 수도 없다. 에크리튀르(*écriture*)—이제야 이 단어를 한국어 소리로 옮겨 쓴다—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잠깐 들여다 본 바로는, 글쓰기, 문자, 표기, 문자기록 등이었다. 이러한 번역이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에크리튀르에 대한 일반적인 번역어를 이 글에서 제안하는 대신에, 임시로 ‘글/쓰기’를 사용하면서 에크리튀르가 어떤 번역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 글을 통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함으로써 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오토비오그래피’를 자서전으로 번역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2. 해체는 단순히 분해에 머물지 않고 재조립을 내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해체는 파괴와 다르다. 그 자체로 한 구조나 덩어리의 구성방법과 그 유지기제를 보도록 해주는 재구성이다. 그리고 이 해체는 바로 내부에서 시작한다. 이는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가능성을 발현시키도록 도와주는 힘, 즉 부정의 힘이 아니라, 긍정의 힘이다. 데리다가 해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피하는 것은, 데리다 스스로 밝히듯이, 해체는 어떤 개념도 방법도 방법론도 아니기 때문이다(Derrida, *Psyché* 387-94). 이 글은 이러한 의미의 해체를 ‘자서전’과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다. 해체는 글/쓰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로 글/쓰기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데리다의 사유에서 ‘번역’에 대해 이해하는 것 역시, 해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불어로 쓰여진 텍스트들의 번역은 본인이 했다. 따라서 이 번역의 모든 한계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이다(Bae 73-81).³ 이러한 자서전의 ‘모순적 구조’는 “두 움직임이 있다. 모두 자서전이고 아무것도 자서전이 아니다”(Il y a donc les deux mouvements: tout est autobiographie, rien n'est autobiographie) (Derrida and Mireille, “Scènes des différences” 26)라는 문장에서도 드러난다. 이 문장은 서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 어떤 의미에서 모든 글/쓰기는 비오그래피 혹은 오토비오그래피(auto-biographie)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데리다의 답의 일부이다. 이 글은 ‘자서전’의 고전적 정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후, 저자를 ‘발화의 장소’로 분석하며, 이에 대한 데리다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이 모순적 명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한국어로 ‘자서전’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自/叙/傳 나(autos)/삶(bio)/글쓰기(graphie)—의 관계를 통해 이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이 글은 이 단어의 분석과 ‘쓰기’—사용과 글쓰기라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에서의 쓰기와, 이러한 쓰기가 생산하는, 혹은 생산할 수 있는 사유의 결과들에 대한 ‘쓰기’—를 통해 ‘나,’ ‘나의 삶과 그 삶의 흔적들, 글/쓰기의 관계와 이들 사이의 ‘번역’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이러한 분석은 ‘자서전’을 ‘삶을 위한 삶—글/쓰기 계약’으로 드러낼 것이다.

II. ‘자서전’ 혹은 ‘자서전적 글쓰기’에서 나/저자, 서사

1. “자서전 조약”에서 저자/내 ‘이름’의 기능

프랑스에서 ‘자서전’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독립된 장르로서 입지를 세우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해온, 자서전의 대부 격인 필립 르죈(Philippe Lejeune)은 자서전을 “한 실존 인물이 자신의 존재를 바탕으로 자신의 개

3. ‘자서전과 ‘자전적 글쓰기’에 대한 또 다른 독해인 이 논문에서, 나는 ‘번역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정’ 이외에 자전적 글쓰기에 대한 데리다의 욕망, 이 욕망과 문학적, 철학적 글/쓰기에 대해서 다루었다.

인적인 삶, 특히 자신의 인성을 조명하는 회고적 서사”(*Récit rétrospectif en prose qu’une personne réelle fait de sa propre existence, lorsqu’elle met l’accent sur sa vie individuelle, en particulier sur l’histoire de sa personnalité*)(14, 원문 강조)로 정의한다. 자서전,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 내밀한 문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자, 내레이터, 그리고 인물의 동일성”(il faut qu’il y ait identité de l’auteur, du narrateur et du personnage)(15, 원문 강조)이 있어야 한다.⁴ 자서전은 한 개인이 자신의 역사를, 본인의 인성을 분석하며, 자신의 삶에서 진실성을 구축하기 위해 쓰는 글쓰기 작업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개인은 이미 스스로에게 자기 동일시 할 수 있는 항상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 개인은 이미 어떤 ‘결정된 정체성’을 글쓰기 ‘시작 전에’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정체성은 이 개인과—글의 소재이자 목적이며 주제인 나—글을 쓰는 사람, 즉 저자와 글 속에서 말하는 사람 사이의 동일성으로 증명되고, 이 동일성은 독자에게 서사의 사실성과 저자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는 가명이나 필명의 사용이나 3인칭 서술 등에 적용된다. 가명이더라도 가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자, 인물, 내레이터의 동일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자의 이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독자가 한 현존 인물과 저자 그

4. L'écrivain(라틴어 *scribanem*)은 쓰기/기록을 하는 모든 이를 이른다. 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대필이나 관공서에서 기록, 문학작품을 쓰는 사람, 즉 작가(auteur), 문학가(littérateur)등을 포괄한다. L'auteur는 어떤 일의 기원이 되는 일을 한 사람이라는 뜻에서부터 의미가 구축된 개념이다. 이 의미의 확장에서,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만들거나 시작한 사람, 혹은 어떤 일의 원인이 된, 아니면 그 일을 일으키거나 만든 책임자를 뜻한다. 더 확장된 의미에서 그림, 음악, 영화나 책의 저자를 뜻한다. 나아가, 이런 생산물을 여럿 만든 이를 지칭한다. 바로 이 뜻에서 écrivain과 일정 부분 뜻을 나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auteur)는 한국어에서 창립자, 개설자, 선구자 혹은 작가와 저자, 예술가를 전부 의미할 수 있다. 르쾨의 이 문장에서 저자는 다수의 작품을 생산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 한편의 자서전을 펴낸, 작가가 아닌 이들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여기서는 ‘저자로 번역했다. 즉, 자서전을—단 한 권 혹은 몇 장이라도—쓴 사람에게 방점을 두고자 함이다. 그러나 이후에 다름 바르트와 푸코의 경우 두 번째 의미를 포함한 세 번째 뜻의 auteur에 강조점을 두고자 ‘작가’로 번역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리고 글 속에서 말하는 이를 어떤 이름을 통해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르죈은 “만약 내가 내 삶의 역사를 내 이름을 말하지 않고 쓴다면, 어떻게 독자는 그것이 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Si j'écris l'histoire de ma vie sans y dire mon nom, comment mon lecteur saura-t-il que c'était moi)(33, 원문 강조)라고 묻는다. 르죈은 자서전을 저자와 독자 사이의 일종의 진실 계약 혹은 조약(pacte)으로 간주한다.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암묵적인 서약을 하고 자서전쓰기 계약을 이행한다. 저자의 진실성은 저자의 이름으로 증명된다. 이러한 자서전 쓰기의 협약은 명료한 만큼이나 불안정해 보인다. 만약 르죈이 셰르지 두브로브스키(Serge Doubrovsky)의 자전픽션/허구(오토픽션, autofiction) 개념을—소설이라는 장르뿐 아니라 모든 픽션—받아들였다면, 이는 아마도 이 불안정함을 보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두브로브스키는 이 개념을 “글의 재료는 엄격하게 자전적, 그러나 그 구성방법은 엄격하게 허구적인”(la matière est strictement autobiographique, la manière est strictement fictionnelle) (“J'ai voulu faire”)⁵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자아, 나’ 정체성, 주체, 개인과 저자, 이름 그리고 허구성이다. 이들은 구심점인 동시에 중요한 변수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주체, 정체성 개념의 한계에 대해서 분석한 후, 그렇다면, 저자/나의 자리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5. 오토픽션을 처음 두브로브스키가 『아들』(Fils, 1977)을 출간할 때 사용하였다. 그는 허구성과 진실성이라는 자서전과 자전적 허구를 나누는 경계가 사실은 매우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이 작품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포양』(Point)과의 인터뷰에서 인정하기도 했다. 결국 루소의 『고백록』(Confessions)도 어떤 의미에서는 허구적인 요소가 있는 자전적 서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전적 허구와 자서전을 서로 구분하려는 노력을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인용한 『리베라시옹』(Libération)과의 인터뷰에서는 여전히 오토픽션의 정의를 재확인했다. 이는 글/쓰기에서 사실들, 혹은 소재들보다 문학적 움직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 저자/나의 분열과 허구적 서사

서사적 언어는 허구의 이야기에만 관련되지 않는다. 말하는 존재인 ‘내’가 말하고 쓸 때, 적어도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열된 이 주체는 태초부터 허구적이다. ‘나’는 태초부터 허구의 계보에 자리한다(Lacan 93-94). ‘나’로 시작하는 모든 이야기는 허구서사이다. ‘나’는 ‘나의 저자’이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내가 말하는 나에 관한 이야기, ‘나’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의 연속, 우리가 나의 삶이라고 부르는 이 삶과 ‘나’는 ‘나’를 이해하는 데 처음부터 실패한다고 말한다. 버틀러에 의하면,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형성되어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발화 행위 속에서 점점 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67-68). 사실, 우리는 우리가 ‘나의 삶’이라 부르는 삶에 온 순간에 대한 기억도 없으면서, 이 삶을 ‘나의 삶’이라 한다. 그렇게 그 삶을 살고, 그 안에서 ‘나’로 시작하는 수많은 말들을 하고 ‘나와 나의 삶’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나’라고 부르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부 알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나’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태초부터, 언어의 세계에 들어가기 그 이전부터, 이미 분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죽음’이라는, 우리가 역시 알 수 없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여전히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쓰면서.⁶

6. 데리다는 이 ‘나의 죽음’이라는 모순적 모티브를 『아포리아』(Apories, 1996)라는 텍스트에서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논평하면서 분석한다. 제목은 복수이다. 즉 ‘하나의 모순 명제가 아니라 여럿의 모순 명제와 그 낱줄과 씨줄이 만드는 텍스트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텍스트는 이 모티브, 즉 나의 죽음은 가능인가, 혹은 우리는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금지된 혹은 불가능한 이행(passage)에 대해서 탐구한다. 예를 들어, ‘나의 죽음’은 ‘내가 가로질러 통과할 수 없는 공간이다. 가로지르기, 이행은 경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극적이고도 일상적인 예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데리다는 이런 종류의 경험은 매일의 삶을 구성하며, 사유의 보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쓴다는 자서전 기획은 불가능하다. 스스로에게 동일시할 수 있는 자아의 일관성 있는 진실로 구성되는 자서전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그러나 이 불가능함은 또한, 매순간 시도되며, 계속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근본적 불가능성은 자서전이 하나의 장르로 존재하는 것도, '나'라는 (나의 삶과 나의) '저자'가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계속 시도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근본적 불가능성은 불가능한 기획의 중요한 동기이다. '나'는 '나'와 '나의 삶'에 동일화과정(identification)을 계속하면서 이 불가능을 시도한다. 이 과정이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내 삶을 쓰는 과정이다. '나'의 '나'로서의 형성 과정, 그 시간과 경험의 기록과정이 '나'의 '나'에 대한 동일시를 매순간 불완전하게 허락한다(Bae 81-91). 이 과정은 하나의 내가 다른 나에게 번역되면서 그 이전의 기억을 일부 보존하고, 일부 상실하면서 진행된다. 그렇다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글/쓰기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발화의 장소'로서 이해 될 수 있음을 전통적인 문학비평, 인간주의(humanisme)와 개인주의에 대한 도전과 비판에서 태동한 문학, 철학 이론에 기대어 밝히고자 한다.

3. 발화의 장소(lieu de l'énonciation)로서의 나/저자/작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글/쓰기를 중성적인 것으로 간주, 작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보아, 작가의 의도나 그의 설명을 중심으로 한 비평에 반대했다(61). 바르트에 따르면 작가는 한 개인이 아니라 언어자체 혹은 글/쓰기를 지칭한다. "나(je)가 나라고 말하는 이 그 이상이 아닌 것처럼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언어는 한 '주체'를 알

편적인 법칙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데리다 사유의 중요한 모티브들, 즉 환대(hospitalité), 용서(pardon), 사건(événement)을 가로지르는 '사유구조'를 볼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아포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구조를 '모순적 구조'(structure aporétique)라고 부른다. Cf. Derrida, Jacques, *Apories*, Paris: L'éditions Galilée, 1996.

뿐 ‘개인’을 알지 못 한다”(l’auteur n’est jamais rien de plus que celui qui écrit, tout comme je n’est autre que celui qui dit je: le langage connaît “un sujet”, non une “personne”)(63-64, 원문 강조). 독창성과 심성을 가진 작품의 기원으로서의 작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는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나’ 혹은 작가를 언어 혹은 글/쓰기로 대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푸코는 이러한 위험을 환기하며, 작가의 기능을 찾고자 한다. 그는 “작가란 무엇인가”(Qu’est-ce qu’un auteur?)라는 강연에서, 그가 『말과 사물』(*Les mots et les choses*)에서 ‘작가들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작품을 개인성에 환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단위들의 책, 작품과 작가들로 구획되지 않는 언어들, 담론들의 여러 층들”(des masses verbales, des sortes de nappes discursives, qui n’étaient pas scandées par les unités habituelles du livre, de l’œuvre et de l’auteur)(791) 분석하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즉, “특수한 담론적 실천 기능의 조건들”(les conditions de fonctionnement de pratiques discursives spécifiques)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Foucault 791). 언제나 “견고하고 근본적인 첫 번째 단위, 즉 작가와 작품의 그것은 존재한다”(L’unité première, solide et fondamentale, qui est celle de l’auteur et de l’œuvre)(792). 그러나 동시에 그는 “누가 말했는가는 중요치 않다”는 베케트의 언명을 불러오며 “글/쓰기는 자기 자신만을 지칭한다”(l’écriture n’est référée qu’à elle-même)(792)는 점도 환기한다. 이어서 푸코는 글/쓰기와 죽음의 연관성과 신성화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작가라는 개념을 작품이나 글/쓰기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작품은 작가만큼이나 개인성에 얽여 있으며, 글/쓰기의 개념은 작가 개념의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성향들을 초월적 익명성으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795). 부재(absence)로서 글/쓰기를 생각하는 것은 초월적인 원칙들과 작품의 영원한 생존에 대한 미학의 원칙 같은 것을 반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작가(저자)의 소멸이 이 지속되는 문제들과 그 반복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796). 대신에, 푸코는 이 “비어있는 장소”(lieu vide)를 그의 기능들이 작동하는 자리들로 복원하기를 제안한다. “기능-작가”(fonction-auteur)는 한 개인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셋의 동시 자아에 연관된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이 글을 쓰고 있을 때라도, 그는 하나의 자아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일을 완성하고 있는 하나, 계획과 논증의 시간들이라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의 의미를 말하는 또 다른 자아라는 이 셋이, 동시에 한 개인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다(803). 물론, 글을 쓰는 ‘나는 어떤 유일한 한 사람을 지칭한다. 그러나 그 자이는 이미 그 안에서 하나이지 않으며, 스스로만을 지칭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인식은 어떤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 글/쓰기를 오랫동안 실천해온 작가이자 이론가인 엘렌 식수(Hélène Cixous)의 말에서 명료히 드러난다.

‘자서전’은 내가 피하는 단어이다. 나는 몽테뉴나 다른 모든 문학가들이 그런 만큼 자서전적이다. ‘나’는 언제나 벌써 타자이며, 번역은 언제나 이미 시작되어 있다. 모두 주체의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몽테뉴가 프랑수아즈에 창설한 것이다. [...] 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 그러나 나는 언제나 세 사람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가 첫 번째이고, 세 번째가 시작하기 위해 돌아온다.

“Autobiographie” est un mot que j’évite. Je l’ai toujours été, ni plus ni moins que Montaigne et que tout littérateur. “L’auto” est toujours déjà autre, la traduction a toujours déjà commencé. Tout part de l’expérience du sujet, ce que Montaigne a instauré franchement dans la littérature française. [...] Je ne vois pas comment on pourrait écrire autrement. [...] Mais je est toujours les trois personnes,

première, deuxième, troisième, c'est la deuxième qui est la première et la troisième revient pour commencer. (Cixous and Jeannet 31)

그녀의 작품이 자전적이라는 언급에 대해서 식수는 쓴다는 작업은 문학이 쓰고 있는 '나'의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자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이 '나'는 언제나 앞서서 벌써 '타자'이며, 쓰는 경험에서 이 타자인 '나'는 적어도 셋이다. 셋은 따로, 동시에 존재한다. 이 순환에서 '나'는 '나'이면서 벌써 '타자'이다. '타자'가 쓰고 있는 하나 이상의 '나'이다.

자서전의 개념은 나에게 '타-서전'으로 올린다. 이는 자기중심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의 집합체이다. [...] 나는 수많은 목소리들에 둘러싸였다. 글을 쓰는 것은 바로 이 많은 목소리들을 각자의 상용어휘체계 그대로, 다층적 색의 복합적인 목소리들로 엮어진 글쓰기에서 들리게 하는 것이다. '내' 안에서 나 자신들-이방인들, 기억/나-들을 들리게 해야 한다.

Le concept d'autobiographie résonne pour moi comme l' "autre-biographie". Il ne s'agit pas d'autocentrement : le moi est un peuple. [...] Je suis hantée par des voix : écrire c'est faire entendre ces voix, chacune avec sa coloration, son idiome, dans une écriture tressée, multicolore, multivocale. Il faut faire entendre dans "moi", mes mois-étrangers, mé-moires. (Cixous 26)

그러므로 자서전은 자기중심적 세계나 자기중심적 글쓰기가 아니라, 그 반대로 타자들의 삶이 '나'라는 장소에서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쓰는 글/쓰기이다. '나/저자/작가'는 다른 이들과 하나 이상인 '나'의 경험과 삶이 말

해지고 쓰여지는 장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타인의 집합체이고 언제나 먼저, ‘타인들’이다. 글/쓰기는 이런 수많은 나/타인들의 삶의 기억이 나를 통해서 각각 기록되는 것이다. 식수는 이것을 ‘기억’이라 한다. 불어에서 기억(메모아 mémoire)은 식수의 글/쓰기에서 기억이면서 동시에, ‘나의 나들’(메-모아 mé-moires, 즉 mes-mois)이 된다. 언제나 먼저 타인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복수인 ‘나’는, 내 안에서도 다중적 분열 주체이다. 따라서 ‘나의 글/쓰기는 자전적이며 동시에, 내(auto)가 아닌 ‘타자(autre)의 자전적 글/쓰기,’ “타-서전”(autre-biographie), 즉 타인과 나의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말화의 장소’가 된다. 이것이 작가/저자/나의 의미이다.

Ⅲ. 이름과 서명, 텍스트와 삶의 관계: 자서전이라는 ‘삶을 위한 글/쓰기 계약’

이 장에서는 ‘나’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서전’에 대한 다른 독해를 시도한다. 이 독해를 통해 ‘자서전’은 저자/작가가 본인과 맺은 일종의 ‘삶을 위한 삶-글/쓰기 계약’이라는 의미를 획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름과 서명에 대한 데리다의 사유, 구체적으로는 그의 니체 텍스트 독해를 분석한다. 이 문제는 저자/작가의 이름이라는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나아가 고유한 개인의 이름이라는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문제까지 닿아 있다.⁷ 우선, 르죈의 ‘자서전 조약’이 주장하듯이 글쓴이의 이름

7. 이름에 대한 데리다의 또 다른 사유로는 같은 해 1993년에 독립된 텍스트로 출판된 『코라』(Khôra), 『이름 이외』(Sauf le nom), 『열정들』(Passions)을 참고할 수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몇 단어로 이 텍스트들을 요약한다면 가장 먼저 쓰여진 『코라』는 플라톤의 텍스트 『티메』(Le Timée)에 대한 분석적인 논평에서 출발하여 이름의 이름, 말하는 장소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간다. 『열정들』은 비밀의 이름(nom du secret)에 대한 분석으로 몸(corps)과 자료집 혹은 텍스트들(corpus)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름 이외』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름의 이름, 이름 중의 이름, 신의 이름, 발설될 수 없는 이름, 혹은 그 이름과 이름의 존재를 넘어서는 어떤 이름에 대해 분석한다. Cf. Derrida, Jacques. *Khôra*, Paris:

과 서명의 '동일성'이 '진실 계약'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나아가, 데리다의 독해는 이름과 서명이 동일한 것이 아님을 밝힐 것이다. 이에 앞서, 푸코의 견해를 데리다의 입장과 비교하기 위해 환기한다. 작가의 이름은 물론 하나의 고유명사이다. 그러므로 이 이름도 역시 다른 모든 이름들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이 이름은 다른 어떤 이름과도 다르게 작동한다. 이 이름은 한 시민이나 하나의 작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속한다. 즉, 작가의 이름은 다른 이름들의 기능을 하면서도 이를 넘어선다. “저자의 이름은 어떤 방식의 담론됨을 특성화하기 위해 기능한다”(le nom de l'auteur fonctionne pour caractériser un certain mode d'être discours)(푸코 798). 저자의 이름은 어떤 전체적 담론의 도래를 드러내며 동시에 이 담론의 위치를 한 사회와 문화의 내부에 연관시킨다. ‘저자의 기능’은 어떤 담론들의 한 사회에서의 존재의 방식, 순환과 기능의 방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798). 이에 대해 데리다는 (저자/작가의) 이름은 ‘서명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 몸, 자료, 텍스트 그리고 ‘나’의 관계

1976년 버지니아 대학에서 불어로 진행된 강연에서 데리다는 이름과 서명의 기능에 대해서 다룬다. 그는 그 자신을 공개적으로 청중 앞에서 드러낸다는 의미에서의 무대경험—강연—을⁸ 통해서, 이름과 서명, 기호들

L'éditions Galilée, 1993; Derrida, Jacques. *Passions*. Paris: L'éditions Galilée, 1993; Derrida, Jacques. *Sauf le nom*. Paris: L'éditions Galilée, 1993.

8. 이 공개된 무대에 스스로를 제공하고 그 무대로 청중들을 초대하면서 그는 나, 말하는 자와 듣는 사람들과 우리의 문제를 그가 설명한 문제들 사이에 끼워넣고 있다. 자전적 노출의 무대는 데리다가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가로질러 ‘모(국)어’(langue maternelle)에 대해 분석하는 텍스트 『타자의 단일언어』(*Le monolinguisme de l'autre*)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 텍스트 역시 원래는 강연이었다. 알려졌듯이 데리다는 그의 모든 세미나와 강연을 앞서 작성하고 그 글을 청중/학생들 앞에서 읽으며 수정하기도 하는 등 즉흥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그는 이 텍스트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분석하고, 청중들에게 직접 말을 걸고 그들을 분석의 장에 초대한다. 또한 이 텍스트의 명제, “나는 단 하나의 언어밖에 없는데 그것은 나의

에 대해 분석한다. 자서전을 둘러싼 문제들은 이 텍스트에서 자전적 '무대'(scène) 즉, 두 개의 자전적인 논증—니체의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와 데리다의 강연—을 통해서 분석된다. 그는 자기 안의 진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련의 문제를 청중들과 그 자신과 함께, 지금 그의 앞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과 그 자신을 가로질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데리다는 청중들을 그의 무대에 초대한다. 그는 전시(exhibition)나 지금 이 무대(scène)에서 그가 점하고 있는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면서, 그는 청중들이 이 “자전적 논증”(démonstration auto-biographique)에서 그를 통해 이 전시의 즐거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한다(Derrida, *Otobiographies* 38).⁹ 이 맥락에서 자서전은 전시성, 공개와 나눔 그리고 즐거움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마치, (다른 이들에게 향하는) 말은 본래 이러한 즐거움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데리다는 자아의 진실이 아니라 바로 이 전시의 즐거움 그 자체를 나누고 싶어 한다. 그는 바로 앞의 타자들과 그에게 주어진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고자 하며 이 장면은 그에게, “자전적 논증”의 장이 된다.¹⁰

언어가 아니다”(13)는 데리다 사유의 구조적 특성인 ‘모순적 구조를 잘 보여준다. 불어는 그가 ‘모(국)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이지만, 동시에 그의 ‘모(국)어’로 간주될 수 없는, 다른 곳에서 온 ‘법의 언어’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그의 분석은 개인사, 가족사와 알제리와 프랑스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촘촘히 엮는다. 다시 말하면, 이 분석은 ‘자전적 글쓰기’가 어떻게 ‘철학적 글쓰기’와 엮이는가를 드러낸다.

9. 제목의 오토(oto)는 오토(auto)와 귀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 제목은 말하고 들을 때 오토 oto(귀, 청각), 오토autos(나)와 오토auto(자동/차)를 모두 들리게 한다. 즉, 말하고 쓰기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무엇을 듣고, 들리는 소리는 누구의 것이며, 듣는 자는 누구인가’ 등의 듣기와 쓰기의 문제, 목소리들의 존재 역시 사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10. 전시와 오토비오그라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몸(corps)과 일련의 텍스트들의 집합으로서의 자료체(corpus)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데리다는 일종의 책의 중심원(foyer du livre)인 ‘그-내’가 구경꾼, 청중, 독자들에게 우회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본다(Derrida, *Passions* 11-19, 54). ‘데리다’라는 이름으로 어떤 상황, 사회, 문화에서 불리워지는 ‘몸’은 이 모든 텍스트의 어떤 발원지가 된다. 물론, 이 모든 글들의 기원지가 바로 이

데리다의 이러한 연출은 삶, 몸, 텍스트와 일련의 텍스트들의 집합, 자료체(corpus)를 새로이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삶의 위치를 무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찬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 철학자의) 텍스트들과 삶의 관계를 사유할 수 있을까? 가령, 데리다의 삶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데리다는 1930년 7월 15일, 수도 알제(Algiers) 근처의 엘비하(El Biar)에서 태어나 2004년 10월 8일 빠리의 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살았고 글을 썼다. 이것으로 하나의 삶을—그동안 생산된 텍스트들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설명하는데 충분할까? 아마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그렇다고 할 것이다. 데리다에 따르면 자전적 경험의 실은 텍스트를 짜는 데 이용된다. 물론, 이러한 자전적 경험이 텍스트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텍스트는 그들이 자전적으로 보이든 아니든 이 실로 짜여진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글의 도입부에서 인용된 “모든 글/쓰기는 자전적이고 어떤 글/쓰기도 자전적이지 않다”는 데리다의 말을 상기할 수 있다.

데리다는 철학자 전기의 두 가지 경향을 비판한다. 철학자의 전기는 그저 우연한 사고로 남겨진 것으로 철학적으로 정당한 텍스트만이 출판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반대로 “철학자들-의-삶들”(vies-de-philosophes)을 아주 미려한 문체로 소설화해버린다. 이 전기 소설들 혹은 전기 심리 소설들은 한 철학 시스템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하에 자주 정신분석학적이고 역사주의적 혹은 사회주의적인 과정들을 담아내곤 한다는 것이다(Derrida, *Otobiographies* 39-40). 이러한 접근은 (철학자의) 삶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사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이라

몸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는 불특정 타자에게 제공되었지만, 직접적인 증여는 아니다. 그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버렸지만, 그렇다고 모든 그의 비밀이 공개된 것도 아니다. 이 둘 사이의 어떤 지점에 그는 ‘온전히’ 노출되어 있다. 불어에서 열정(passion)은 서구 유태기독교문화의 역사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열정은 박해와 희생과 관련이 있다(Derrida, *Demeure* 26-31). 이 텍스트의 제목 ‘Passions’은 어떤 의미에서 비평에 몸을 던지는, 그 ‘고문(시련)’을 견디고 가로지르는 ‘열정적 몸들’의 공개적 나눔이라 읽을 수도 있다.

는 주제로 다루기 어렵다. “과학성을, 늦지 않게, 잔여없이, 쟁취해낸 과학은 모두 죽음의 과학이다”(les sciences qui conquièrent leur scientificité sans retard ni résidu sont des sciences du mort)(42). 따라서 삶은 과학으로서 철학의 주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철학과 삶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른 자원들을 동원해야 하며, 최소한 이름과 서명에 대한 새로운 분석”(doit mobiliser d’autres ressources, et au moins une nouvelle analyse du nom propre et de la signature)(40)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데리다가 자신의 자전적 노출의 장에서 니체의 한 텍스트와 대화를 시도하는 목적이다. 니체는 자신의 삶과 서명을 그의 텍스트들에 끌어들이는 철학자 중 하나이다. 이 관계를 듣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합에 익숙한 귀가 아닌, 새로운 ‘귀’가 필요하다.

‘작품’과 ‘삶,’ 시스템과 시스템의 ‘주체’ 사이의 가장자리의 *디나미*.¹¹ 이 가장자리는—그의 힘과 권력, 잠재적이고 유동적인 위력 때문에 내가 디나미라고 부르는—수동적이지도 능동적이지도 안도 바깥도 아니다. 무엇보다 디나미는 알파한 선이 아니라, 한편으론, 철학적 제안들의 울타리 안의, 다른 측면으론 이와, 이미 이름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한 작가의 ‘삶’ 사이의, 어떤 가시적 혹은 나뉘어지지 않는 윤곽이다. 이 분할 가능한 경계선은 이 두 ‘몸’들을—즉 몸(corps)과 자료체(corpus)—우리가 얼핏 보기 시작한 여러 법들에 따라서 가로지른다.

La *dynamis* de cette bordure entre l’“œuvre” et la “vie”, le système et

11. 디나미(dynamis)는 그리스 고전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그리스 사상 전반에—즉 의학, 수학 등—중요한 용어이다. 라틴어 번역으로 가능성(possibilité), 힘(pouvoir), 즉 라틴어 *potestas*, 혹은 *potentia*(권력, 힘 puissance), *uis*(힘 force, 폭력 violence), *uirtus*(가치 valeur, 질 qualité, 덕 vertu) 등이 가능할 것이다.

le “sujet” du système. Cette bordure—je l’appelle *dynamis* à cause de sa force, de son pouvoir, de sa puissance virtuelle et mobile aussi—n’est ni active ni passive, ni dehors ni dedans. Surtout elle n’est pas une ligne mince, un trait invisible ou *indivisible*, entre l’enclos des philosophème d’une part, et, d’autre part, la “vie” d’un auteur déjà identifiable sous son nom. Cette bordure divisible traverse les deux “corps”, le corpus et le corps, selon des lois que nous commençons seulement à entrevoir. (Derrida, *Otobiographies* 41, 원문 강조)

예를 들면, 몸과 텍스트들의 관계는 이 가장자리를 좀 더 잘 이해하게 해줄 수 있다. 이 두 몸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철학적이고 자전적인, 즉 ‘오토-비오그라피적’ 텍스트 안에서 함께 자리 잡는다. 이 정착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름에 대한 사유이다. 이는 또한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윤곽인 디나미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다. 데리다는 이 건축의 법칙들을 니체의 마지막 텍스트를 통해서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이름으로 서명된 서문과 첫 장 사이의 첫머리(exergue)에 주목한다. 한 장도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단락에서 니체는 본인의 생일날에 지난 44년을 물어버리고, 오직 삶을 구한다. 니체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쓴다. 과거를 묻고 구한 삶은 불멸이다. “어떻게 내가 모든 내 삶에 이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는 나의 삶을 이야기 한다”(Comment ne devrais-je pas en être reconnaissant à toute ma vie?—Et ainsi raconte-je ma vie. Und so erzähle ich mir mein Leben)(재인용. Derrida, *Otobiographies* 55).¹² 데리다는 이를 “삶의 시간과 삶의 이야기와 살아있는 자에 의한 삶

12. 이 강연/텍스트에서 데리다는 니체의 텍스트 『이 사람을 보라』를 직접 독일어로 읽으며 알

의 글/쓰기의 시간, 즉 자서전의 시간”(le temps de la vie et le temps du récit de la vie, de l’écriture de la vie par le vivant, bref le temps de l’autobiographie)(53)으로서 이해한다. 데리다가 듣는 것처럼 ‘자서전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삶과의 어떤 ‘신용 계약’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2. 서명의 기능: 신용 계약(contrat de crédit)

만약, 저자의 삶이 그의 이름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 이 동일시와 그 정당성을, 글/쓰기와 그에 서명하는 하나의 이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일까? 이러한 정당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명이 창출하는 어떤 ‘신용’이다. 신용의 창출, 이것이 서명의 기능이다.

미국 인권독립선언문은 신용을, 자신의 신뢰를, 스스로에게서 자신에게 부여한다. 한 획의 힘이며 글/쓰기의 힘, 글/쓰기에의 권리로서 서명이 스스로에게 신용을 창출하면서부터, 나 자신이 모든 경우에서 (주격, 여격, 목적격) 나타난다. 한 획의 힘은 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구축하며 생명의 자격을 주고 법에 생명을 준다.

Elle s’ouvre un crédit, son propre crédit, d’elle-même à elle-même.
Le soi surgit ici dans tous les cas(nominatif, datif, accusatif) dès lors qu’une signature se fait crédit, d’un seul coup de force, qui est aussi un coup d’écriture, comme droit à l’écriture. Le coup de force fait droit, fonde le droit, donne droit, *donne le jour à la loi*. (Derrida, *Otobiographies* 23, 원문 강조)

렉산드르 비알라트(Alexandre Vialatte)의 프랑스어 번역본을 참고, 그의 번역을 비교 수 정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 니체 텍스트 인용은 데리다의 번역으로 그의 텍스트에서 재인 용되었다.

미국독립과 인권 선언문이 낭독되고 민중의 승인을 받기 전에, 작성 단계에서 이미 민중의 이름으로 서명되었다. 이 서명이 이 선언문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 선언문을 통해 법이 탄생되고, 그것을 적용할 권리가 생겨난다. 이 서명은 스스로에게 민중의 이름을 신용대출한 것이다. 민중에게서 양도받은 서명을 대행하는 것은 제퍼슨의 글/쓰기이며 이렇게 글/쓰기는 양도자 명의로 자기신용대출을 하면서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명의로 작성된 선언문 뿐 아니라 저자가 서명하는 모든 텍스트에 적용된다. 텍스트의 정당성은 앞으로 올 서명으로 형성된다. 니체의 경우를 보자. 이와 비슷한 계약이 니체의 텍스트에서 체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대리자나 양도자가 없다. 니체는 니체와 서명을 통한 계약을 한다. 니체는 자신만의 이름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같은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이름은 “동음이의어, Friedrich Nietzsche”일 뿐이다. 니체가 주장하는 자신만의 정체성은, 그 자신이 스스로와 맺은 놀라운(inouï)¹³ 계약을 통해서 얻어진다(Derrida, *Otobiographies* 47). 니체는 이러한 서명의 기능을 통해 본인 스스로, 그의 삶과 ‘신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글/쓰기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 계약이 지닌—일종의 선언과도 같은 이 신용계약—효력은 이 텍스트 이외에 다른 텍스트에도 소급적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스스로와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삶에 빛이 있는 셈이다. 정당성의 이 이름, ‘프리드리히 니체’는 ‘니체가 이 계약을 맺고 있는 이 텍스트와 그에 서명될 이름으로만 보증된다. 그런데, 이 동음이의어는 어떻게 다른가? 니체는 지난 44년과 그의 이름의 동음이의어를 살아 있는 자의 이름(nom du vivant)을 위해서 묻는다고 쓴다(55). 즉, 이름들, 니체의 서명으로 정당성을 획득한 이름과 이 이름의 동음이의어는 죽은 자의 이름과 산 자의 이름으로 구별된다. 그

13.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적인, 놀라운, 믿어지지 않는 이례적인이라는 뜻의 inouï에서, ouïe 청각이라는 단어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름들은 동음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숨긴다.

죽은 존재라는 것은 적어도 이것이 어떤 은혜이든 저주이든, 계산된 것이든 아니든, 이름을 지닌 자에게로 더 이상 환원되지 않고, 단지 이름에게로 환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기에, 이름을 지닌 자가 아닌 이름은 언제나 그리고 선형적으로 죽은 자의 이름이다. 이름에 환원되는 것은 절대로 살아있는 자에게로는 환원되지 않는다.

Être mort signifie au moins ceci qu’aucun bénéfice ou maléfice, calculé ou non, *ne revient plus* au porteur du nom mais seulement au nom, en quoi le nom, qui n’est pas le porteur, est toujours et à priori un nom de mort. Ce qui revient au nom ne revient jamais à du vivant. (Derrida, *Otobiographies* 44, 원문 강조)

즉, 이름은 선형적으로 죽은 자의 이름, 죽은 자의 것이다. 그러나 데리다가 읽고 있는 ‘니체’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와 서명을 통해 신용계약을 맺고 어떤 경계를 ‘그의 이름들’ 사이에 만들고 있다. 죽은 자의 이름과 산 자의 이름이 니체의 이름 안에 공존한다. 앞으로 올 서명과 그 서명이 창출하는 “무한한 신용”(Derrida, *Otobiographies* 47)은 그의 ‘이름’과 ‘이름, 혹은 이 이름의 동음이의어’ 사이에 차이를 만든다. 그러나 이 감추어진 차이는 언제나 사라질 위험에 노출된다. “이 이름은 [F.N] 벌써 가짜 이름, 가명(假名), 그리고 동음이의어로, 험잡으로, 다른 프리드리히 니체를 숨기기 위해서 올 것이다”(Ce nom [F.N] est déjà un faux nom, un pseudonyme et un homonyme qui viendrait dissimuler, sous l’imposture, l’autre Friedrich Nietzsche)(47, 원문 강조). ‘니체’를 감추는 ‘동음이의어로서의 니체’는 글/쓰기와 서명의 문제를 듣기의 문제로 돌아오게 한다. 어쩌면, 이 둘 사이에는 희미한 유사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때

문에 '서명'을 읽을 때는 이것이 어떤 자의 서명인지 아는 데 유의해야 한다. 르죈의 '자서전 협약'(Le pacte autobiographique)에 의한 자서전 쓰기에서는, 어떤 실존하는 개인인 나/나레이터/저자의 이름의 동일성은 계약의 정당성을 저자와 독자 간에 제공하며 저자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데리다가 분석한 니체의 서명과 이름의 입장에서 보면, '이름의 동일성'이 하나의 진실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고 보장하는 근거는 희박하다. 저자의 이름과 저자의 서명은 그 자체로 어떤 계약과 진실의 증거로 기능하기보다는 그것을 위협에 빠트린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 그래서 삶과 신용계약을 맺는 자의 이름과 그 이름을 감추어 버리는 동음이의어 사이의 차이를 들을 수 있는 청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위협은 보다 분명히 들린다.

3. '자서전': 삶을 위한 삶—글/쓰기 계약

서명을 통해 저자가 신용을 대출 받은 상대는 바로 삶이다. 니체는 본인의 생일에 그의 삶, 그에게 기부된 삶에 대해서 빚이 있음을 인정한다. 빚을 인정하면서 니체는 그의 이름으로 그동안 대출 받아온 삶에 대한 신용계약을 쓴다.

왜냐하면 서명하는 자는 그의 삶을, 죽음으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지난 삶에서의 귀환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삶, 그는 스스로에게 이 삶을 말하기 때문에, 그는 첫 번째 아니면 유일한 이야기의 수신인이다. 텍스트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의 '나'는 스스로에게 영원회귀의 신용 속에서만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회귀로서 이 이야기에 앞서서는 그는 존재하지도, 서명하지도 도착하지도 않는다.

Parce que le signataire raconte sa vie, le retour de sa vie passée en tant que vie et non en tant que mort; mais parce que cette vie, il se

la raconte, il est le premier sinon le seul *destinataire* de la narration. Dans le texte. Et comme le “je” de ce récit ne se destine que dans le crédit du retour éternel, il n'existe, il ne signe, il ne s'arrive pas avant le récit *comme* retour éternel. (Derrida, *Otobiographies* 56-57, 원문 강조)

자서전은 어떤 F.N 혹은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한 삶의 이야기나 전기소설, 철학자의 삶에 대한 어떤 내재적인 독해도 의미하지 않는다. 데리다는 ‘니체’를 철학자나 지식인, 혹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읽고 있지 않다. 그는 니체를 텍스트 『이 사람을 보라』의 한 장면—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그의 삶을 위해 삶에 대한 신용대출계약을 맺으며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출발하여 읽고 있다. 이 읽기에 따르면, 삶의 신용대출계약 이전에 ‘생존자’의 이름을 품은 ‘이 사람의 몸’은 존재하지 않았다. ‘저자의 이름을 품은 몸-삶’과 그의 또 다른 ‘몸’으로서의 텍스트 혹은 삶과 세상으로서의 텍스트, “텍스트로서의 세상”(Derrida, *Circonfession* 90; 김상환 91-119)의 관계는 ‘텍스트’ 안에서, 글/쓰기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는 이 영원히 순환하는 삶의 신용대출계약 안에, 영원히 돌아오는 이야기 안에만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 계약으로 두 몸체는 연결되어 있다. 텍스트는 생존자의 몸이 살아가고 살기 위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장이다. 생존자는 죽은 자를 묻고 과거의 시간에서 ‘삶’으로 돌아와 미래의 어떤 생존자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 신용이 서명의 기능으로 순환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하는 삶의 이야기는 순환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토’를 들어야 한다. 그(나)들은 서로에게 쓰고 있고 이것이 삶/텍스트이다. 이 글/쓰기 계약이 ‘자서전’의 의미이다. “여러분들은 그의 삶에 대해서도 그의-삶-그의-작품에 대해서도 기부에 대한 ‘네, 네’의 사유 이전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것이다”(Vous n'entendrez rien de sa vie, ni de sa-vie-son-œuvre avant cette pensée du “oui, oui” donné au don (*Geschenk*))(Derrida,

Otobiographies 57). 삶에 대한 긍정의 사유 이전에는 이 두 몸체의 관계를 들을 수 없다.

“디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삶에 대한 무한 긍정과 우리에게 기부(don) 혹은 대출(crédit)로서 주어진 삶을 긍정하는 사유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삶에 대한 ‘네’는, 이 삶에 대한 신용대출의 시간이 영원히 회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환기한다. 우리는 언제나, 삶의 매 순간에 대답하면서 마치 반복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산다. 그러나 어떤 순간도 두 번은 없다. 매 순간 우리는 과거의 죽은 자에서 생존자로 삶의 비슷한 순간으로 돌아온다.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서명을 하고 서명은 또다시 우리에게 삶을 신용대출해준다. 즉, 이 글-삶/쓰기는 스스로에게 향한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앞으로 올 ‘나’에게로 향한다. ‘나’는 나를 향해 과거의 시간에서 삶에 돌아와 내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이미 ‘내’가 아니다. 동시에, ‘나는 언제나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처럼 ‘자전적 시간’은 직선적 시간이 아니며 정의되거나 고정될 수도 없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니체는 이 시간을 정오와 같이(un grand midi) 묘사한다. 그는 인류를 과거에서 돌려 미래의 시간을 향해 준비시켜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 정오의 시간에 선언하는 것 같다(Derrida, *Otobiographies* 56). 이 정오는 니체의 이중기원을 환기시킨다. 그의 아버지는 36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보다 오래 산다. 그는 죽음과 삶에서 태어났다고 느끼며, 이 중간에 자리한다. “내 안에서 나의 아버지는 죽었으나, 나의 어머니는 살고 늙어간다!”(En moi mon père est mort, mais ma mère vit et devient vieille!)(62). 아버지, 죽음과 어머니, 삶이라는 이중기원이 중년의 나이에 그에게 환기되면서 정오는 그에게 특별한 시간이 된다. 오는 삶과 마주하는 영원히 회귀하는 시간을 맞도록 인류를 준비시키는 시간. 이 정오의 시간에 니체가 서명하는 이름을 듣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적 혹은 중간적 자리에서 그는 양쪽 모두에 긍정한다(oui, oui). 죽음-삶/글/쓰기. 그는 안에도 밖에도 없으며 동시에 안에도 밖에도

있다. 이 모순은 삶의 조건이며 매일 삶에 쓰여지고 있는 각자의 삶의 이야기이다. ‘니체’(의 이름은)는 죽음과 삶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자서전’은 스스로에게 삶을 말하며, 죽음에서 삶으로 향하게 하는 신용계약의 삶-글/쓰기를 의미 한다.¹⁴ ‘불가능한 통과와 위반’은 매일의 삶/글쓰기에서 계속된다.

‘자서전’을, 이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긴장) 관계에서부터 읽어내는 독해는, 우선 ‘자서전’은 한 번의 일관적 서사구축을 통해, 어떤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자신의 삶을 일종의 허영심으로 전시하거나 고백하면서 정당화하는 장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다. 동시에 자서전은 서명이라는 행위를 통해 신용으로 얻어지는 정당성을 통해서만 실현가능해지는 무한 반복되는 매일의 삶-글/쓰기라는 것을 드러낸다. 자서전은 불가능한 기획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서전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불가능한 기획은 매일 삶에서 끊임없이 쓰여진다. 즉, ‘자서전’은 각자의 영원한 삶-글/쓰기이다.

14. 이 글에서 데리다의 니체 텍스트 분석에 기대어, 자서전을 ‘삶을 위한 삶-글/쓰기 계약’으로 의미지었다면, 데리다의 ‘직접적으로 자전적인’ 텍스트들인 『시르콩페시옹』(Circonfession)과 『타자의 단일어』(Le monolinguisme de l'autre)의 분석을 통해, ‘진실을 만들기 위한 글/쓰기계약’(contrat d'écriture pour "faire la vérité")이라는 자서전의 또 다른 의미를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에 나누고 싶다.

Works Cited

- Bae, Jisun [배지선]. “L’écriture autobiographique chez Derrida.” *Inmunkwabak*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인문과학] 102 (2014): 73–105. Print.
- Barthes, Roland. *Le bruissement de la langue*. Paris: L’Éditions de Seuil, 1984. Print.
- Butler, Judith. *Le récit de soi*. Trans. Bruno Ambroise and Valérie Aucouturier. Paris: PUF, 2007. Print.
- Cixous, Hélène. “Le moi est un peuple.” *Le magazine littéraire* 479 (2002): 26. Print.
- Cixous, Hélène, and Frédéric-Yves Jeannet. *Rencontre terrestre*. Paris: Galilée, 2005. Print.
- Derrida, Jacques. *Otobiographies*. Paris: L’Éditions Galilée, 1984. Print.
- _____. *Psyché, Invention de l’autre*. Paris: L’Éditions Galilée, 1987. Print.
- _____. *Passions*. Paris: L’Éditions Galilée, 1993. Print.
- _____. *Le monolinguisme de l’utre ou la phrothèse d’origine*. Paris: L’Éditions Galilée, 1996. Print.
- _____. *Demeure*. Paris: L’Éditions Galilée, 1998. Print.
- _____. “Qu’est-ce qu’une traduction « relevante » ?” *Cahier de l’Herne: Derrida*. Ed. Marie-Louise Mallet and Ginette Michaud. Paris: L’Éditions l’Herne, 2004. 567–76. Print.
- Derrida, Jacques, and Calle-Gruber Mireille. “Scènes des différences, Où la philosophie et la poétique, indissociables, font événement d’écriture.” *Littérature* 142.2 (2006): 16–29. Print.
- Derrida, Jacques, and Geoffrey Bennington. *Circonfession. Derrida*. Paris: L’Éditions de Seuil, 1991. Print.
- Dobrovsky, Serge. *Fils*. Paris: L’Éditions Galilée, 1977. Print.
- _____. “Écrire sur soi, c’est écrire sur les autres.” *Le Point*. 22 Feb. 2011. Web.
- _____. “J’ai voulu faire sentir l’expérience du siècle.” *Libération*. 23 Feb. 2011. Web.
- Foucault, Michel. “Qu’est-ce qu’un auteur?” *Dits et écrits*. Paris: Gallimard, 1994. 789–821. Print.
- Kim, Sang-Hwan [김상환]. “Derridaui texte” [Derrida’s Text, 데리다의 텍스트]. *Cheolhaksasang* [Philosophy, 철학사상] 27 (2008): 91–121. Print.

Lacan, Jacques. *Écrit I*. Paris: L'éditions de Seuil, 1999. Print.

Lejeune, Philippe. *Le pacte autobiographique*. Paris: L'éditions de Seuil, 1996. Print.

Nancy, Jean-luc. *La Déclosion*. Paris: L'éditions Galilée, 2005. Print.

Abstract

Deconstruction of the “Autobiography”: An Analyse of the Relationship of Visible and Invisible among *Autos, Bios* and *Graphein*

Jisun BAE (University Paris 8)

This article shows the conditions of the elaboration, and production, of writings. This work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os*, the I, the self—inseparable from the *bios*, life as an experience that the body goes through—and the *graphein*, the act of writing, the written form, at once text and narrative. This article interrogates the “I” who knows the identification. Autobiography is an assembly of identities, which requires the readability of oneself. However, the relationship to the language as much as oneself is aporetic because the “I” is placed between the impossibility of owning oneself and language or of appropriating it all in forming some “I” in language and life. The autobiographical writing is considered as a relationship in translation between “I,” “I” and writing, not as a homogeneous narrative provided by the identity of the narrator and the author. It concerns the analysis of the *otobiographies* through which Derrida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riting and the question of the proper name. This analysis is another approach to autobiographical writing. Autobiographical writing, an account of an individual’s story, reveals the writing of or/and for life.

Keywords: autobiography, writing, life, name, Nietzsche, Derrida

Jisun BAE with a doctorate in Gender Studies (2014), is firstly a research associate of LEGS (Laboratory of Gender Studies and Sexuality), and secondly, she is also continuing her studies in philosophy on the texts of

www.kci.go.kr

Derrida. Her major research is about writing; apart from this, but always in relation to it, her interests include history, memory, testimony, gender, and feminism. Her publications include articles and translations; she expects to publish a volume, *Writing an Embodied Voice*, taken from her thesis.
annieviolacer@gmail.com

Received: 22 March 2015 Reviewed: 2 May 2015 Accepted: 5 May 2015
